

중동 우려 완화 및 반도체 투자 재점화 속 3대지수 상승

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yunjeong.kim@ls-sec.co.kr
RA 성현영 _hyseong@ls-sec.co.kr

중동 상황 경계 출발한 증시, 확전 우려 제한되며 반등세

- 미 증시는 DOW +0.27%, S&P500 +0.81%, NASDAQ +1.30% 상승. 기술주, 임의소비재, 금융주 강세, 필수소비재, 에너지 약세
- 전락후강 장세. 이란과의 무역 긴장으로 3 대지수 약세 출발했으나, 양국의 전면전 확대는 경계하는 입장을 보인다. 트럼프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합의를 원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밝히며 우려 경감. 국제유가 소폭 진정 WTI \$72.1(-2.0%) Brent \$76.3(-2.2%)

마이크론발 반도체 투자심리 개선

-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+3.1%. 마이크론(+4.4%)이 미국내 공급망 생태계 강화 투자를 비롯해 팹 및 기술투자 규모를 \$200B→\$250B로 크게 상향하며 투자심리 개선
- 한편, 10일 나스닥 상장을 앞둔 SK 하이닉스 ADR(SKHY) 기관 수요예측에서 공모물량의 7배가 넘는 청약물량 접수. 잠정 공모가는 주당 \$149로 제시, 9일 한국증시 증가 기준 +3.1% 높은 수준(SK 하이닉스 보통주의 1/10). ADR 상장으로 \$26.5B 조달, 외국기업의 미 증시 상장 사상 최대규모

유가↓에 국채금리 하락, 지표는 주택 둔화 vs 고용 안정

- 국제유가 진정과 30년물 입찰 호조 소식에 국채금리 하락 10Y 4.539%(-2.8bp), 2Y 4.164%(-3.5bp)
- 6월 기준주택판매 MoM -2.4%, 전월·컨센 하회. 주택공급 부족, 중간매매가격 상승 지속 및 30년 만기 모기지금리(4-5월) 6.23~6.53% 구매부담↑
-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.5만건, 전주·컨센 하회
- 앞서 6월 FOMC 당시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공언했던 연준 개혁 5대 TF(소통·대차대조표·데이터·생산성·고용·인플레이) 공동의 장단 공식 발표. 실리콘밸리, 글로벌 연방은행 및 학계 출신 거물급 외부 인사가 영입되며 독립적 운영 방침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MU	마이크론	+4.5%	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발표에 주가 상승. 최대 \$3B에 달하는 이번 신규 투자에는 대만에 본사를 둔 글로벌웨이퍼스가 텍사스에서 웨이퍼 개발 및 제조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\$500M가 포함, 10년 장기 웨이퍼 공급 계약 수반됨. 또한, AI 발 메모리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'35년까지 미국 내 CapEx 규모를 기존 대비 \$50B 증액한 \$250B로 상향 조정. 루멘텀(+11.1%), 코히런트(+3.2%),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(+3.2%), 램리서치(+6.0%) 등 동반 상승
META	메타	+4.7%	신형 코딩 AI 모델 '뮤즈 스파크 1.1' 및 개발자용 API 플랫폼 프리뷰 출시. '뮤즈 스파크 1.1'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과금모델로, 오픈소스가 아닌 폐쇄형모델. 모델 공개 소식 이전에는 '26년 내 컴퓨팅 용량 7GW 확대 계획 및 '27년 이를 14GW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소식 보도. 또한 9월 자체 AI 칩 생산 개시 소식 보도됨
CRM	세일즈포스	-2.5%	키뱅크는 투자이견 '비중확대'→'섹터 비중'으로 하향 조정. AI 제품군인 에이전트포스의 성장 견인 시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데 기인
NFLX	넷플릭스	-0.2%	Citi는 투자이견 '매수' 유지, 목표주가 \$115→\$100로 하향 조정.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밸류에이션 하락 반영해 목표가 하향 조정
AZN	아스트라제네카	-5.7%	심장질환 치료제 후기 임상시험 실패 소식에 주가 약세. 심장질환 치료제 '웨이누아'가 후기 임상시험에서 심혈관 사망 및 심장 질환 재발을 감소시키는 주요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발표
PSKY	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	-4.3%	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(+1.8%) 인수 건 관련해서, 다음주 미 주정부들의 합병 저지 소송 검토 가능성 보도